

목포문학박람회, 경제효과·만족도 높다

남도관광정책연구원 조사 직접 경제효과 40억원 목포 인지도·호감도 상승 재방문 의사도 89.1%



목포문학박람회가 경제효과와 만족도·재방문 의사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2021목포문학박람회 개최식 장면. <목포시 제공>

목포시가 의뢰해 (사)남도관광정책연구원이 실시한 '2021 목포문학박람회 평가분석 연구용역'에서 문학박람회가 경제효과와 만족도·재방문 의사 등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용역에서는 박람회장을 찾은 현장 방문자 533명을 대상으로 조사 및 인터뷰를 진행했으며, '목포시 인지도 및 호감도 상승' (93%), '목포 문화예술 산업 및 관광산업 발전 기여' (92%) 등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사 전반에 대한 성과항목 평균 점수도 90점을 넘는 등 만족도가 전반적으로 높았다.

문화체육관광부 문화관광축제 자체 성과평가 지침 기준으로 산출한 직접 경제효과는 목포겨울방문객 15억원, 외지방문객 24억5000만원 등 39억 5000만원으로 분석됐다.

방문객 평균 지출 비용은 1인당 목포시 방문객 5만5510원, 외지방문객 9만8910원이었다.

지역주민과 외지방문객 비율은 52%와 48%로 각각 나타났다.

특히 자녀 동반 가족단위 방문객과 20~30대 방

문객이 많았다. 현장 체험학습의 기회를 제공함에 따라 학생들의 참여가 많았고, 직업군에서는 사무직과 전문직이 높았다.

만족도 조사에는 만족이 91.5%로 압도적이었다. 프로그램에서는 다양한 전시관 운영 및 문학관련 공연 등 프로그램, 웰니스테라피존 등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차기 박람회에 대한 기대감으로도 이어져 목포문학박람회에 대한 재방문 의사가 89.1%로 나타났다. 타인 방문 권유 여부에 대해서도 89.7%가 '의사있음'으로 높았다.

김종식 목포시장은 "문학박람회에 대한 만족도가 평가분석 결과에서도 문학박람회 현장에서 체

감한 여론과 다르지 않게 매우 높게 나타났다"면서 "박람회 기간 연장에 대한 요청이 많았는데 다음 박람회는 보다 조직적인 행사 운영과 내실있는 프로그램에 중점을 두고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문학을 주제로 하는 전국 최초의 '목포문학박람회'는 지난 10월 7일부터 10일까지 열렸다. 박람회에는 시민과 학생, 관광객, 외국인 등 각계각층의 관심을 모으며 현장 5만여명, 온라인 8만여명 총 13만여명이 온·오프라인을 통해 참여했다.

목포시는 문학박람회 주제관을 시설 정비 등을 거쳐 오는 7일부터 상설전시관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목포=문병성 기자·서부취재부장 moon@

진도 관광 홍보 UCC 공모전 최우수상 '진짜 진도'



진도 관광 홍보 UCC 공모전에서 '진짜 진도' <사진>를 출품한 배우미(서울)씨가 최우수상을 차지했다.

진도군은 공모전에 접수된 총 16편 중 9개 작품을 선정했으며, 진도군의 숨은 비경과 관광명소, 먹거리 등을 소재로 창의적이고 흥미 있는 영상콘텐츠를 발굴해 관광 홍보를 할 계획이다.

심사는 총 5명으로 구성된 내·외부 전문가가 아이디어, 표현방식의 참신성, 전달 메시지의 명확성, 작품 완성도·기술력, 지속적인 활용 가능성 등의 기준으로 최종 심사를 거쳐 모두 9편의 수상작을 선정했다.

최우수상은 상금 300만원, 우수상 2팀(각 100만원), 장려상 6팀(각 50만원)의 상금이 주어졌다.

이번 공모전 선정 작품은 향후 진도군 홍보 영상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공모 선정 결과는 진도군청 누리집 고시·공고란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진도군 관계자는 "코로나 시대 비대면 관광지 발굴, 특색 있는 관광프로그램 육성, 수려한 자연 경관을 바탕으로 체험관광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진도=박현영 기자 hypark@kwangju.co.kr

영광고추마을 영농조합 '희망나눔캠페인' 제1호 참여

영광고추마을 영농조합법인이 1000만원 상당의 태양초 가공품인 영광태양초고추장(1.5kg) 408개를 영광군에 기탁하며 '희망2022 나눔캠페인'에 제1호로 참여했다.

영광고추마을 영농조합법인은 매년 이웃사랑과 나눔에 참여하고 지역의 전통적인 태양초 가공·판매를 3대째 이어오며 영광군 특산물인 태양초 고추 가공 식품업을 선도하며 전통특산물의 전국 브랜드화를 구축했다. 또 영광 태양초를 브랜드화해 지역 특산물인 친환경 고춧가루, 태양초 고추장, 태양초 초고추장, 고추장 굼비 등을 대형마트와 백화점, 인터넷 쇼핑몰에 판매하는 대표적인 향토기

업이다. 박영인 영광고추마을 영농조합법인 대표는 "영광고추마을 영농조합법인에 보내주시는 관심과 사랑에 보답하고자 기탁 하게 됐다"며 "영광태양초의 우수한 품질로 만든 고추장이 전국 어디에도 자랑할 수 있는 특산품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광군 관계자는 "매년 따뜻한 지역 만들기에 앞장서는 박영인 대표께 감사드린다"며 "기탁해주신 물품은 지역 독거 어르신과 소외 계층 등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사랑의 마음을 담아 전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영광=이종우 기자 jylee@kwangju.co.kr

해남군 공모사업 4년만에 2500% 증가 '눈에 띄네'

올 123건 5179억원 선정 사업팀 구성 등 준비 주효

해남군이 올해 총 123건, 5179억원에 달하는 공모사업에 선정되면서 창군 이래 최대 실적을 거뒀다. 이는 민선7기 출범 당시인 2017년 43건, 200억원에 비해 4년만에 사업비만도 2500% 증가라는 놀라운 성과다.

해남군은 중앙부처나 전남도 등 외부기관에서 시행하는 공모사업에 3년 연속으로 최고기록을 세우고 있다. 지난 2018년 49건 498억원, 2019년 67건 754억원에 이어 2020년 103건 1182억원에

이어 올해는 5000억원을 돌파했다. 군은 열악한 지방재정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각종 공모사업 선정에 군의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조직개편을 통해 공모사업팀을 구성, 실과소와 유기적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공모사업의 준비 단계부터 철저한 사업계획을 세워 체계적으로 공모사업을 총괄관리하고 있다.

또 정부 공모사업에 안주하지 않고 선제적 사업 발굴을 통한 기획 공모로 4년 연속 역대 최대 공모사업 선정 실적을 거둔 것은 물론 올해는 사업비 확보 5000억원 돌파라는 기록까지 세우게 됐다.

올해 공모사업 규모가 대폭 늘어난 것은 4079억원이 국비로 투입되는 해남군 역대 최대 국립기관

인 농식품 기후변화대응센터 유치 등 대규모 사업들이 줄줄이 선정된 데 힘입은 결과이다.

현재 심사 중인 공모사업도 11건에 달하는 등 연말까지 공모사업 선정규모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군은 내년 공모사업에도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을 세우고, 주요 현안사업과 관련한 기관 방문과 전문가 자문 등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또 지난달 3일부터 24일까지 7회에 걸쳐 공직자 정책역량 강화교육을 통해 공모사업 대응전략을 비롯한 분야별 심화과정을 진행하는 등 내년도 사업추진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고 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목포시 '동절기 복지위기가구 발굴' 운영

목포시가 내년 2월까지를 저소득 위기가구 발굴과 자연연계를 위한 '동절기 복지위기가구 집중 발굴기간'으로 지정하고 특별 운영한다.

중점 발굴대상은 도움이 필요하지만 지원받지 못하는 복지소외계층으로 겨울철 계절형 실업, 주소주자 사망·질병·장애, 코로나19로 인한 실직, 휴·폐업, 근로소득 감소, 부채 증가 등으로 인한 경제

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다. 시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상담팀과 복지동장, 복지기동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등 인적 안전망을 활용한 민·관협업을 통해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비대면 안부 확인 전화를 하고 단전·단수 등 취약세대 관련 빅

데이터도 활용한다.

시는 위기 사유에 따라 긴급복지지원, 맞춤형 급여를 시행하는 한편 한부모가족, 장애인, 차상위 등 저소득가구 기준 충족 시 다양한 맞춤형 복지서비스와 연계할 방침이다.

목포시 관계자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그런 가정을 알고 있다면 망설이거나 지나치지 말고 129 보건복지상담센터나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에 도움을 요청하길 당부한다"고 밝혔다.

/목포=박영길 기자 kyl@kwangju.co.kr

무안군-LH, 도시재생행복주택 100호 건설 협약

무안군이 2일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무안읍 성남리에 도시재생 LH행복주택 건설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성남리 일대 약 2200㎡에 사업비 140억원을 투입해 행복주택 100호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2024년 8월 공급을 목표로 한다.

협약에 따라 무안군은 인허가 업무 행정지원, 사업부지 무상제공, 입주자 선정지원 협조 등의 업무

를 수행한다. LH는 설계·사업승인·시공 등 건설 관련 업무를 총괄하고 행복주택 운영·관리를 담당한다.

김산 무안군수는 "무안 성남 행복주택 사업과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시너지 효과를 내어 성남리 일대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무안=임동현 기자 idh@kwangju.co.kr

귀할수록 전문 브랜드 비타민하우스

45 북위 45도 이상
흑한에서

15 15년을 자란
차가버섯을 엄선

12 12배 고농축으로
영양을 꽉 채운

**시베리안
차가버섯**

Vitamin House
구입문의 1588-8529

비타민하우스 전속모델 서경석